

목포시의원 뒷돈·말바꾸기 등 '눈총'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목포시의원들이 이권 개입과 땅투기 의혹, 시민들과의 약속을 외면한 채 말바꾸기에 나서는 등 잇따른 추태로 눈총을 받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대행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목포시의회 고모(61) 의원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목포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대행사 대표로부터 4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4선 의원으로 제10대 목포시의회 전반기 부의장까지 지낸 고 의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의 짐을 과시하며

의원 상당수 땅투기 의혹·이권 챙기기 등 구설 "정당의 엄정한 후보 검증·시민들 선택 중요"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재선의 노모(62) 의원도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노 의원은 도축장을 짓기 위해 직원에게 토목산업기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도록 하고,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또 목포시의원의 말바꾸기도 입살에 오르는 마한가지다.

민선 10기 전·후반기 의장을 연 임한 목포시의회 조모(61) 의장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될 경우 차기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재출마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전반기 의장에 이어 후반기 의장까지 도전하면서 과욕이라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조지였다.

당시 의장선거는 지방의회에 대한 당의 과도한 개입과 지역위원장 의 자기사람 심기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의장 당선자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출마하지 않는다"

고 약속했다. 조 의장은 약속을 어긴채 최근 목포시선거구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해 4선 도전에 나섰다.

이들 외에도 목포시의회 상당수 의원들이 개발예정지 등에 대한 땅투기 의혹과 이권 챙기기 등 구설에 오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 박모(50)씨는 11일 "일부 지방의원들이 의원으로서 역할보다는 잣밭에 눈이 멀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 안쓰러울 뿐이다"면서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의 엄정한 후보검증은 물론 시민들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집단폭행 주도 20대 조폭 구속

광주 광산경찰서는 11일 새벽 불은 일행을 집단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상해)로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A(22)씨를 구속하고, A씨 친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전 0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한 길에서 C(20)씨와 D(17)군의 얼굴 등지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행은 상가 화장실에서 "C씨 일행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새벽 불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가 밖에서 다투는 과정에 A씨 일행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사이드미러 '손목치기'로 보험금 뜯은 40대

밤에 지나가려는 차량을 상대로 보험금 사기인 일명 '손목치기'로 돈을 뜯어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남성 민모(42)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씨는 심야 주택가의 도로에서 서행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팔꿈치를 고의로 부딪친 뒤 아픈 것처럼 행세,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손목치기' 수법을 활용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해 이를 이용, 단란주점 등 유흥비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들도 고의 사고를 의심했지만 접촉한 게 사실이고 측면이 사각지대라 증거 확보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보험 접수를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민씨가 보험사를 통해 돈을 받은 것 외에도 개별적인 합의금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컬러복합기로 위조지폐 제작·사용 30대 입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1일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000원권을 대량으로 위조해 사용한 A(33)씨를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000원권 170장을 위조한 뒤 지난달 27일 오전 4시 5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조지폐 7장을 사용하는 등 부산지역 편의점 16곳에서 위조지폐 21장(10만5000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끄럽다"고 이웃 살해한 50대 검거

부산 북부경찰서는 10일 "문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며 이웃을 살해한 A(50)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7시 25분께 부산 북구 모 아파트 B(49)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한 차례 찌르고 아파트 밖으로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 목 등을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옆집에 사는 B씨가 평소 출입문을 세계 담아 소음이 발생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6억원 사기 후 도주한 부부 검거

부산 감서경찰서는 10일 지인으로 부터 6억3000만원 상당의 엔화를 건네받은 후 달아난 A(43)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지인 B씨가 갖고 있던 6300만엔(한화 6억3000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세관에 대신 외환반출신고를 해주겠다고 속인 후 현금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이날 오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가려다 미리 인상착의를 전달받은 부산항보안공사 보안검색요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뜨뜨가무시증매개 털진드기 '주의보'

보성서 올해 첫 발견

전남지역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뜨뜨가무시증 매개 털진드기 유충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돼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보성지역에서 포획한 야생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전자 분석 결과 뜨뜨가무시증 원인 병원체의 최소양성률(MPR)이 0.42%로 나타났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야생쥐를 포획, 털진드기를 채집해 병원체 보유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제3군 법정 감염병인 뜨뜨가무시증은 야외활동이 잦은 시기에 논이나 밭, 수로, 초지 등에 서식하는 야생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이다.

감염되면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병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야외활동시 피부 노출 최소화, 풀밭에 눕지 않기, 귀가 후 목욕하고 옷 털기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김정환 기자



서울광장에 나타난 한반도 1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 현장 관계자들이 한반도 모양을 만들고 있다. 서울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광장 잔디밭에 꽃으로 만든 한반도 모양을 설치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現 중3 대입 적성고사 폐지...수능 논·서술형 문항 도입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 국어·수학·영어 등 주요 과목 중 대학이 정한 2~3개를 객관식 시험으로 치르는 적성고사 전형을 폐지하고 수능에 주관식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이 담긴 대입제도 개편 초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초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겼다고 발표했다. 올해 8월 국가교육회의가 내용을 최종안에 앞서 교육부가 개편방안의 골격을 제시한 것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대학별 적성고사(객관식 지필고사) 시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특기자전형, 논술전형과 함께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중위권 수험생이 선호하는 수도권대학과 명문대 지방권 퍼스에서 적성고사 전형을 활용해 왔다. 이 때문에 적성고사는 상위권과 비교하면 내신이 좋지 않은 중위권(내신 4~6등급)이 수시모집에서 '내신 불리'를 만회하는 기회로 활용돼 왔다. 2018학년도 대입 기준으로 12개 대학에서 4753명을 선발했다.

교육부는 프랑스, 미국, 일본, 핀란드 등 해외처럼 2022학년도부터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2가지로 제시했다. 1안은 객관식 위주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 추가, 2안은 객관식 수능(수능 I)과 논·서술형 수능(수능 II)을 분리해 치르는 안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입시체제가 필요하고 다양한 주제로 토론수업이 활성화 되려면 주관식 논·서술형이 필요하다 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면 객관식 문제풀이 수업에서 학생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는 수업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논·서술형 수능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팽창할 것이란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다만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은 수능평가방법, 수시·정시 선발 시기 등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를 거쳐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주요 논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뉴시스

